추진력을 장착하는 법

(창42:1~38)

18.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19.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20.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21.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2.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23.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24.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25.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42장 전체의 말씀 중심으로 <추진력을 장착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추진력을 장착하는 법'

1983년에 12살 된 한 소녀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자 어머니와 둘이서 미국 버지니아로 이민을 갑니다. 12살의 어린나이로 학교를 불쑥 들어가고 나면 우선 영어가 안돼서 문제입니다.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가르칩니다만, 1983년에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때 영어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차별과 무시를 당하고 피부색으로 인한 인종차별까지 경험하면서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모멸감을 한국여성 특유의 오기로 바꾸고 그 오기를 다시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켜서 뉴욕대학 정치학과 동아시아 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

제법과 외교학 전문대학원인 터프츠 대학 플레쳐 스쿨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 후에 이 소녀가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1기 때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한반도-일본-오세아니아 담당 국장을 역임하고, 그 전의 조지 부시 대통령의 집권 2기 때에도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한반도-일본-오세아니아 담당 국장을 역임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미국중앙정보국(CIA)에서 북한문제 전문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콜롬비아 대학에서 웨더 헤드라는 이름을 가진 동아시아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한국 이름으로 김수미 씨이고, 미국 이름으로 수미 테리라는 여성으로 43살이 되셨습니다. 대단하죠? 아버지도 없이 어머니와 12살에 미국에 건너가서 백악관의 보좌관으로 일을 하고, CIA에서도 활약을 하고, 유명한 콜롬비아 대학에서 웨더 헤드라는 동아시아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분이 어느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뚫고 미국의 주류 사회로 진입할 수 있었으며, 지도자로서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느냐의 질문에, 3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열정(Passion), 끈기(Persist), 추진력(Push)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끊임없이 이 3P의 원칙으로 자기를 채찍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해요.
그런데 사실 이 열정과 끈기는 추진력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진력은 목표를 향해서 밀고 나가는 힘인데 열정 없이는 목표를 향해 밀고 나갈 수가 없고, 조그만 어려움에도 주저앉는 성격이라면 끈기가 없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밀고 나가는 힘이라는 말 안에 열정과 끈기가 다 포함돼야 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열정과 끈기가 없으면 추진력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어렸을 때에 미국 아이들로부터 받았던 모멸감을 오기로 발전시키고 그 오기를 다시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켜서 열정과 끈기와 추진력으로 바꾸어서 생을 끊임없이 강력한 추진력으로 스스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지금 40살 초반이니까 부시 대통령 때에는 30대였습니다.
30대 중반에 백악관에 들어가서 동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활동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요셉이 20년 만에 형들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므로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하는데, 그 곡식을 주관하고 파는 사람의 우두머리가 요셉이니 자연스럽게 형들과 대면을 하게 되는데 요셉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20년이 지나서 늙었지만 달라졌겠습니까?
기근이 들어서 2년 정도 지난 뒤로 그 행색이 남루했겠죠. 기근 때문에 고생이 심했을 것이고 방법이 없으니 애굽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 히브리 말투를 다 알아들으니 형들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았을 것이고, 그 형들이 자기한테 곡식을 사려고 무릎을 꿇었을 때에 요셉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인 9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보자마자 맨 처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라고 합니다.
17살 때에 꾸었던 그 꿈을 생각합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고 격세지감(隔世之感)이라는 말이 이 장면보다 잘 적용될 수 있는 장면이 있겠습니까?
지금 온 10명은 세겜 옆에 있는 도단에서 양치는 형들을 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명을 듣고 갔던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자기를 팔았던 현장에 있던 10명의 형들입니다.
그 때에는 베냐민은 없었거든요. 지금도 베냐민은 빠져있습니다. 그렇게 20년 만에 모였는데 자기는 총리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왜 꿈을 생각하느냐?
37:19-20절에 “서로 이르되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라고 하면서 팔았습니다.
형들은 요셉만 편애하는 아버지를 원망하다가 편애를 받는 요셉이 이런 꿈을 두 번이나 이야기하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방향을 바꾸어서 동생에 대한 미움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하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유다의 설득을 통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17살에 꾸었던 꿈대로 이루어진 현실을 요셉은 보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고 묘합니다.
형들은 그 꿈 때문에 증오가 발동되어서 만에 하나라도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팔아버렸는데,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요셉과 수미 테리라는 여성을 비교해봅니다.
애굽과 미국 비교가 됩니다. 그 당시의 애굽이 미국 같은 국가 아닙니까? 또한 요즘의 미국이 또한 애굽 아닙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한반도-일본-오세아니아 담당 국장.
대통령이 한반도-일본-오세아니아 쪽의 정책을 세우려고 할 때에는 이 수미 테리 씨와 의논을 합니다.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자리에 요셉을 세운 것과 비슷하죠. 물론 규모나 직위가 완전히 다르지만 둘 다 대단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느냐?
이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자기가 말한 대로, 열정과 끈기와 추진력을 발동했습니다.
그것이 발동하게 된 작은 계기는 어렸을 때 겪은 차별과 영어를 못함으로 느꼈던 모멸감이 오기로 발전하고, 그 오기가 승화되어서 그런 3P의 에너지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요?
수미 테리가 미국에서 오른 자리와 요셉이 애굽에서 오른 자리를 비교하면 그 자리 자체만으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수미 테리가 그 자리까지 오른 힘이 600마력의 슈퍼카라고 한다면, 요셉이 총리에 오른 것은 자리로만 놓고 볼 때에는 달나라, 금성, 수성으로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는 로켓의 추진력과 비교할 만한데 요셉에게서는 열정, 끈기, 추진력이 나타나 보이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무슨 열정이 나타났습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불굴의 끈기로 추진했습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수미 테리가 열정과 끈기와 추진력이라는 자가 발전한 에너지를 가지고 도착한 그 자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오를 수는 있다고 칩시다. 반 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예도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말에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를 못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셉은 이집트 전역과 근동지역 전역의 칠년 대기근을 혼자의 지혜로 감당하고 구제해냅니다. 그 자리에 오른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추진력이 요셉의 생애에 어떻게 장착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수미 테리 씨가 대단한 여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선민은 이런 식으로 생의 추진력을 장착하지 않습니다.
12살 한국 소녀가 엄마와 미국에 가서 백악관과 CIA의 직위에 오르게 되는 데는 추진력이 필요했는데, 요셉이 히브리 족속의 아들로 당시의 미국 같은 존재였던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추진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던 것일까요?
수미 테리처럼 모멸감을 받아서 오기를 발동하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모멸감을 자기 안에서 씨름을 하고, 잠재되어 있던 에너지가 발동하여 불타기 시작하고 오기로 발전해서, 수미 테리를 우습게 봤던 백인 아이들이 아무도 백악관에 들어가지 못할 때에 수미 테리는 들어갔으니 대단합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모멸감에 반응하여 추진력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증오심을 갖거나 분노를 느끼거나 모멸감을 느낄 때에 좌절하지 않고 맞대응을 굳건하게 한다면 추진력이 생길 수 있고, 열정이 생길 수 있고, 끈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나의 삶을 뚫고 들어온 모멸감과 분노와 억울한 감정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힘들과 내가 맞서 싸워서 생긴 추진력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력이 생겼다면 요셉이 느낀 모멸감과 분노는 수미 테리 씨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형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팔리고 사랑 받던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증오라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생을 뚫고 들어왔을 때에 씨름 선수가 서

로 샅바를 붙잡고 씨름을 하듯이 그 에너지와 씨름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미 테리 씨는 그것을 맞잡고 씨름하는 동안에 추진력이 생겼던 것이나, 요셉은 그것을 맞잡고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에너지는 어디에 투입이 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지금 할 일을 찾기 위해 모든 심정을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꿈도 꾸었던 것이고 해석도 했던 것이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 총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꿈이라는 게 끊임없이 지금 내가 할 일과 알아야 될 일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 소통의 현재진행형을 유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 쏟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생애를 뚫고 들어온 형들의 미움의 에너지가 잉여 에너지가 되어버립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면 그 미움 자체가 에너지입니다. 그 미워하는 에너지가 나를 뚫고 들어와서 닿으면 그 에너지를 붙잡고 내가 억울해하고 분해할 때에 씨름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의 에너지가 발동되고, 저 사람을 이기겠다는 결심에 의해서 추진력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 10명의 미움의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에 그 에너지를 맞잡지 않고 하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억울하다는 느낌에 빠져있지 않고 지금 노예로 팔려온 보디발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통의 대상자로 생각하고 온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으므로 요셉의 생을 뚫고 들어왔던 형들의 미움의 에너지는 잉여분이 되는데, 이 잉여분을 하나님께서 쥐십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내 생애를 뚫고 들어온 모든 미움의 에너지를 상대하고 씨름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쥐십니다.
내가 붙잡고 씨름하면 다 타버리고 맙니다. 원수가 생길 때에 원수와 마음으로 씨름을 하면 내가 소진되어 버립니다.
수미 테리처럼 나를 태워서 자가 발전을 하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끝이 어떤가는 두고 봐야해요. 잘못되리라는 악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허무해지고, 그게 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와요. 내 안의 것이 다 소진되어 버리고 공허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외부로부터 내 생애로 들어오는 모든 에너지를 맞잡고 맞대응하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므로, 땅에서부터 내 생애로 뚫고 들어오는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 손에 쥐어지는 잉여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가 추진력이 되는데 슈퍼카의 추진력이 아니라 로켓의 추진력이 됩니다.
12살짜리 소녀가 미국 대통령의 두 번의 통치기간에 머물러 있는 것은 보통일이 아닙니다만, 그렇게 치면 애굽에 노예로 팔린 히브리 족속의 아들이 바로 왕의 모든 권한을 다 쥔 것은 어

떻습니까?
수미 테리는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이사회의 극동아시아 담당이었지만, 요셉은 바로의 인장 반지를 받아서 전권을 쥐게 되고, 이게 바로 요셉이 장착한 추진력의 실상이었고, 하나님께서 쥐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 청년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가룟 유다가 있어도 내버려두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도 상대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해도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가겠다는 결심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미워했던 에너지가 잉여 에너지가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손에 쥐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마치 요셉이 기근으로부터 애굽 전역과 근동지방의 사람들을 구원해 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꼭 미움 같은 것만 그런 에너지가 되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느껴지는 모든 중압감이 다 에너지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자식 키워야 되는 모든 중압감을 우리가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데, 내가 소모되고 소진되는 것입니다. 추진력이라고 해봐야 너무 보잘 것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추진하겠습니까? 조금 추진하다가 힘이 빠져서 끝나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미 테리가 인간 중에서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마11: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민은 직장 문제, 아이 문제, 건강 문제 등 모든 외부의 중압감이 에너지로 내 생애를 뚫고 들어올 때에 맞잡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 길을 십자가에서 부활과 승천으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자리는,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할 추진력이 우리의 생애에 장착되는 자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압감이 나를 누를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맞잡고 씨름을 하며 오기를 발동하고 억울함에 호소하고 분해하고 증오하고 두려움에 쫓기는 것조차도 에너지라서 그것을 붙잡고 씨름을 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중압감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마음을 그것들을 붙잡는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하늘의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중압감이 느껴진다면, 먼저 주님을 따라서 이 중압감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신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이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중압감이 느껴지고 힘든 일이 느껴지고 외부의 에너지가 나를 뚫고 들어와서 억누를 때마다, 그것을 맞잡고 싸우지 말고 열정과 끈기와 추진력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면 나를 내리 누르는 세상의 모든 에너지가 잉여 에너지가 됩니다. 한 마디로 폭탄이 땅에 떨어져도 터지지 않는 폭탄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다시 장착될 때에 하나님이 그 폭탄을 던지시면, 세상이 그 폭탄을 나에게 던졌을 때와는 다른 차원의 에너지가 나타나고 생의 추진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에너지도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잉여 에너지가 되어버립니다. 뚫고 들어오려는 그 에너지를 맞잡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억울한 감정에 휩싸여서 억울함을 맞잡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 귀를 기울이며 살았더니 결국 감옥에서 총리 자리로 추진되어 간 것입니다.
요셉 생애의 이 추진력이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세상이 내 생애에 뚫고 들어와 자리 잡으려는 세상의 에너지와 맞붙어 싸우지 않고 잉여 에너지가 되도록 만든 것이고, 그 잉여 에너지는 하나님 손에 쥐여지고, 그렇게 된 에너지는 우리 인간의 열정과 끈기와 추진력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내가 감옥에 억울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했지만 잊어버린 채 2년의 세월이 지납니다만, 2년 세월이 지났을 때에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추진되고 있었던 것이고,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해서 감옥에 들어갈 때에도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너무 큰 추진이라서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 삶에 도대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맨날 십자가만 붙잡고 있어요?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무언가가 추진되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상상도 할 수 없는 추진력이 여러분의 생애에 장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에너지의 효율을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 세상이 내 생애를 뚫고 들어오는 그 모든 에너지가 잉여 에너지가 되어서 하나님 손에 쥐어지게 하시고, 로켓과 같은 추진력으로 내 생애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